

# 광주·전남 중산층이 무너진다

집값·주가 폭락 투자자 대부분 큰 손실

대출이자만 '눈덩이' ... 파산위기 내몰려

일식집을 운영하는 박모(46·광주시 광산구)씨는 최근 파산 위기에 놓였다. 2년 전 '큰맘' 먹고 새 아파트를 장만한 것이 화근이었다.

박씨는 지난 2005년 5월 광주시 북구에 3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출지에 '빛더미'에 앉게 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기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대출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현재 박씨는 은행 이자만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을 쓰고 있다. 기준 주택담보대출 4천500만원에 새 아파트 대출 1억7천만원 등 주택 관련 대출만 1억5천만원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과 재료값 등으로 인해 가게 운영

마자 어려워지면서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졌다. 일식집은 경기를 많이 타는 편에 매상도 지난해부터 절반 가량 줄었다.

박씨는 "지금 집은 내놓은 지 6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고 있는 데다 새 아파트도 미분양이 많아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며 "매달 들어가는 적자와 은행이자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유가 등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택 경기 침체와 국내 증시 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벼랑'으로 내몰린 것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해부터 주택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주택 소

유자들의 가슴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광주는 지난 2004~2005년 남구 봉선동과 서구 풍암지구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면서 한 때 '분양 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시장 침체로 인해 결국 움직달싹 못하는 형국이 됐다. 대부분 꿈에 부풀어 '부동산 재테크'에 나선 중산층들이이다.

이들은 1가구 2주택의 증과세를 피하기 위해 최근 아파트를 내놓거나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처분에 나섰지만 싸늘한 거래 열기로 인해 밭만 구르고 있다. 소형주택이나 일부 인기 아파트를 제외하고 사설상 주택거래가 중단된 테다 새 아파트도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처분이 어렵게 된 탓이다.

한모(40·광주시 북구)씨는 "2년 전 8천만원의 대출을 끼고 장만한 아파트가 인근에 재건축 입주률이 높아지면서 프리미엄은 커녕 값이 되레 떨어지고 있다"며 "신용대출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 냈던 이자와 연봉의 3

분의 1이 넘는다는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부동산은 투기'라며 주식을 택한 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주식 광풍'을 전후로 상당수 지역 투자자들이 쌈짓돈으로 주식·펀드 투자에 나섰지만 올해 초 증시폭락으로 인해 '쓴맛'을 맛봐야 했다.

김모(36·광주시 남구)씨는 주식투자 1년 만인 지난해 11월부터 전업 투자자로 나섰다 큰 낭패를 봤다. 직장 생활 10년간 저축한 돈 5천500만원에 부모님에게 빌린 7천만원 등 총 1억2천500만원으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으나 현재 계좌에는 3천만원만 남아있다.

이씨는 "1년간의 주식투자를 통해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했는 데 끝도없는 폭락장세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며 "정당한 투자로 자산을 불리겠다는 꿈이 깨지면서 결혼이나 인생설계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호주 청정우 좋아요

9일 서울 가양동 이마트에서 토니버크 호주 농림수산부 장관이 도우미들과 함께 호주 청정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지역 친환경영' 자리 잡았다

■ 법인설립 13주년 광주신세계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 지역민 호평

우수 중기제품 판로 확대... 고용창출 앞장



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2007년까지 선행효행 장학금 10억1천600만원,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생활비 지원, 희망배달캠페인 등 사회봉사사업에 13억8천200만원, 광주신세계미술제와 갤러리 운영 전국체전 후원 등문화예술체육지원사업에 18억2천만원 등 총 52억7천여만원을 사회공헌비용으로 지출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투명하고 견실한 경영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재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리는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전남 동부권 축협 공동브랜드 '지리산 순한한우'

최대 50% 할인가에 소비자 판매

전남 동부권 8개시·군(순천·여수·광양·고흥·곡성·구례·보성·장흥) 7개 축협이 연합해 만든 전국 최초의 한우 공동브랜드인 '지리산 순한한우'가 평소 가격보다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만난다.

롯데마트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할인행사는 지리산 순한한우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단골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롯데마트 전국 점포에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실시된다.

등심·채끝(1kg)은 정상가보다 30% 할인된 5만4천원, 국거리·불고기 3만원, 윗등심·갈비 2만원, 국거리 2만원을 할인해 판매된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1등 맛집

## 맛 따라 떠나는 맛찾아!

### 석양돌솥밥

석양돌솥밥은 전통 돌솥에서 끓여내는 맛이 특별한 돌솥밥입니다. 맛과 풍미가 다른 재료로 조리되는 특별한 맛입니다.

### 청둥오리 전문점

청둥오리 전문점은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만든 맛있는 오리 요리를 제공합니다. 맛과 풍미가 다른 재료로 조리되는 특별한 맛입니다.

## 초당한정식

### 유진정

유진정은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만든 맛있는 한정식을 제공합니다. 맛과 풍미가 다른 재료로 조리되는 특별한 맛입니다.

### 여수 맛집

여수 맛집은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만든 맛있는 해산물을 제공합니다. 맛과 풍미가 다른 재료로 조리되는 특별한 맛입니다.

### 정식

정식은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만든 맛있는 한정식을 제공합니다. 맛과 풍미가 다른 재료로 조리되는 특별한 맛입니다.